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7.2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佛, 파리에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피습

- 7.19「제랄드 다르마냉」佛 내무장관은 '샹젤리제 거리 명품매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,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였다'고 발표

※ 언론은 프랑스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지만, 군인 피습(7.15), 카페 차량돌진(7.17) 등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

○ 프랑스, 파리올림픽 개막식 테러 대비 총력

- 7.22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26일 센 강 주변에 경찰과 軍 저격수를 배치하는 전통적 방식부터 인공지능(AI) 카메라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기술까지 총동원될 예정이라고 보도

※ AI 감시 카메라는 '비정상적인' 활동 패턴 등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활용

미 주

○ 美 정보당국,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 입수 경호 수준 강화

- 7.17 언론은 미국 정보당국이「트럼프」前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해 비밀경호국(SS)의 경호 수준을 높였으나, 용의자「매슈 크룩스」와 연관성을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보도

Secret Service

※ 이에 대해 이란은 "트럼프 암살 계획은 근거 없고 악의적인 주장"이라며 "이란의 장군 살해를 명령한 트럼프는 법정에서 단죄받아야 한다"고 반박

○ **멕시코 대통령, 트럼프 피격 후 美 정부에 총기 규제 강화 요구**

- 7.17 언론은 「로페스」 멕시코 대통령이 '트럼프 총격 암살미수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게 대통령 후보자 중 누가 재선에 성공하든지 총기 판매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'고 보도

※ 그는 멕시코 수사당국의 자료를 인용, 멕시코에서 압수된 5만정의 무기류 中 75%가 미국 특히 텍사스州로부터 밀수입된 무기들이었다고 부언

중 동

○ **이스라엘, 후티반군 근거지 예멘 첫 공습**

- 7.21 이스라엘 방위군은 후티반군이 있는 예멘 북부 호데이다의 발전소 및 연료창고 등에 폭격을 가하였으며, 이는 전날 후티반군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무인기 공습을 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발표

※ 이에 대해 「안토니오 구테우스」 UN사무총장은 "역내 긴장고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"고 발표

○ **이라크, 악명 높은 ISIS 지도자 체포**

- 7.21 이라크 국가안보국은 민간인과 보안군을 대상으로 수년간 테러 행위를 저지른 악명높은 ISIS 지도자 「아부히바」를 성공적으로 체포하여 자신의 테러행위 피해자의 시신 위치 등을 자백받았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**韓 정부, 파리 올림픽 기간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**

- 7.23 韓 정부는 파리 올림픽 기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지 공관과 협력해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(7.24~8.12), △사건·사고 예방과 발생시 대응 △프랑스 관계 당국과 협력체계 구축 등 신속대응팀*을 파견

* 대응팀은 외교부·소방청·경찰청·대테러 담당기관 등 정부 합동 3개조로 구성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인도 아메다바드 도심 연쇄폭발 테러

○ '08.7.26.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시내 상가 인근 밀집지역에서 10여분 동안 최소 17개의 **폭탄**이 **연속**으로 **폭발**, 56명이 **사망**하고 200여명이 **부상**

○ 경찰 수사 결과, **군중 운집 지역**인 시장·병원 등 곳곳에 설치된 다수의 **시한폭탄***이 폭발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

* 택시, 자전거 짐, 배달용 도시락통 등에 부착되었던 저성능 폭탄이 차례로 폭발

'02년에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간 무력충돌로 1,000여명이 사망

– 同 지역은 **인도 최대 종교분쟁** 지역으로, 폭탄테러로 인한 힌두 · 이슬람교도간 갈등이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한동안 불안감 고조

* 인도인의 종교는 힌두교 80%, 이슬람교 14%, 기독교 2.3%, 시크교 1.7% 등으로 구성

○ 同 테러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, '**인도 무자헤딘**'이라는 단체가 사건발생 전 한 언론사에 **테러예고 이메일**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

– '22.2.17 인도 법원은 해당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'인도 무자헤딘' 조직원 49명 중 38명은 사형, 11명은 종신형 선고

⇒ **여름 휴가철 및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 야외 행사 증가로 군중 운집이 예상되는 장소 대상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동향 주시**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〈 급조폭발물(IED : Improvised Explosive Device) 〉

- **(정의)**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직접 제작한 폭탄이나 폭발물 또는 기존 폭탄을 개조한 형태의 폭발물을 의미
- **(특징)**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조합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폭탄에 기폭장치를 추가하여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 있도록 제작
  - 은밀하고 기습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이나 무장단체들이 테러에 주로 사용
- **(대응)** 전파교란 기술을 이용하여 IED의 원격조종 기폭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등장하였으나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음